

# 개발의 문화사와 부양자/남성성 획득의 드라마

: 이문구의 『장한몽長恨夢』(1973)을 대상으로

김은하\*

차례

1. 개발의 시대 풍경과 이장(移葬)의 서사
2. 분단 체제 하의 유명들과 금지된 애도
3. 민중 약전의 형식과 음담패설체의 탄생
4. 결론을 대신하며

## 〈국문초록〉

이문구의 『장한몽』은 1960년대 중반을 배경으로, 서울시 서대문구 신천동의 공동묘지를 경기도 광주군 명주리로 옮기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이다. 산 5번지는 본래 풍광이 아름다운 산이었지만, 6.25 전쟁 동안 약이천 개의 무덤이 불법으로 생겨나면서 공동묘지가 되었다. 그러나 미국인이 혼혈아를 위한 기술 학교를 조성하면서 묘지 이전이 시작된다. 묘지는 이제 원한에 찬 혼령이 배회하는 그로테스크한 장소가 아니라 전쟁 혼혈아들이 저마다 기술을 익혀 어엿한 사회인으로 성장하기 위한 학교로 용도 변경되는 것이다. 이는 이장(移葬)이 살아남은 이들의 마음을 짓누르는 전쟁의 회한으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삶을 모색해 가는 상징적 행위일 수 있음을 암시한다. ‘이장’의 모티프는 울분과 침통의 나날을 벗어나 진보와 쇄신을 통해 역사의 새로운 전진을 모색하는 개발주의에 부응하는 내러티브이다.

개발은 단순히 도시 공간을 효율적으로 재편성하는 국토의 개발 전략

\*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 칼리지 객원교수

에 머물지 않는 자기 개조 사업이다. 개발은 명분주의적이고 이상주의적이면서 현실 생활에서는 나약하고 상호 의존적인 전통적 남성성을 벗어나 생존 주체로서 근대적 남성성의 자질을 획득하도록 명령하기 때문이다. 전통/근대, 농촌/도시로의 이동과 전환은 사회 변동이 무성(無性)적인 것이 아니라 남성이 친취적 행위자로서 산업 사회의 남성성을 획득하는 젠더화된 드라마임을 뜻한다. 특히 이 소설은 경쟁의 도시 서울에서 생존의 자본이 취약한 하위 계급의 남성들이 불법과 반칙마저 무릅쓰며 살아남기 위해 분투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하위 계급 남성들이 보여주는 남성우월주의로서 ‘대항적 남성성(protest masculinity)’은 중간 계급의 ‘지배적 남성성’이나 청년문화운동 세대의 퇴폐적이고 ‘우울증적 남성성’ 과도 구별되는 개발기 남성성 서사의 한 유형이다.

핵심어 : 개발, 근대적 남성성, 한국 전쟁에 대한 애도, 민중 약전, 음담패설체 등

## 1. 개발의 시대 풍경과 이장(移葬)의 서사

이문구의 『장한몽(長恨夢)』<sup>1)</sup>은 1960년대 중반을 배경으로 서울시 서대문구 신천동의 공동 묘지를 경기도 광주군 명주리로 옮기는 과정을 담고 있는 두 권의 장편 소설이다.<sup>2)</sup> 소설의 배경인 산 5번지는 본래 풍광이 아

1) 『장한몽(長恨夢)』은 계간 『창작과비평』(통권 19호~22호)에 1970년 겨울부터 71년 가을에 걸쳐 연재된 원고지 2800 장에 이르는 대작이다. 이 글은 작가의 사후에 전집이 나온 랜덤하우스중앙 본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랜덤하우스중앙 본은 작가가 『창작과비평』에 연재된 내용을 그대로 담은 삼성출판사 본(1973)이 아니라 책세상 본(1987)을 재출간한 것이다. 삼성출판사 본보다 문장이 다듬어지고 분량이 다소 적어졌을 뿐 큰 변화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작가의 의도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책세상 본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개작 과정에서 문장이 어떻게 달라졌는가에 대해서 다음의 논문에 밝혀 있다. 전정배, 『이문구의 ‘장한몽(長恨夢) 개작 연구』, 『국어국문학』 24, 동아대학교 국어국문학과, 2005, 103-120쪽.

2) 이문구는 여러 인터뷰를 통해 이 이야기의 상당 부분이 자신의 실제 경험에 토대

롭다운 산이었지만, 해방 후 서울시로 편입된 이후 “전쟁이 버린 술한 목숨들을 함부로 내다버려”(상권, 10쪽) 저절로 생긴 공동 묘지이다. 그러나 한성학원의 미국인 원장 브라운이 공동 묘지를 혼혈아(混血兒)들을 위한 기술 학교를 세우기 위한 대지로 조성하면서 묘지를 경기도로 옮기는 공사가 시작된다. 이는 이장(移葬)이 단지 공동 묘지의 위치를 옮기는데 머물지 않고, 한 사회의 마음을 사로잡은 전쟁의 회한에서 벗어나 개발에 매진하기 위한 근대화 기획임을 뜻한다. 근대화 프로젝트가 가동되어 개발이 공동체의 이상으로 떠오르면서 신천동 공동 묘지는 유명이 배회하는 그로테스크한 장소가 아니라 전쟁의 상흔인 혼혈아들이 유용한 노동력 혹은 어엿한 사회인으로 성장하기 위한 학교로 용도 변경되는 것이다. 즉, ‘이장/매장’의 플롯은 더 넓게는 울분과 침통의 나날을 벗어나 진보와 쇄신을 통해 역사의 새로운 전진을 모색하는 개발 시대의 풍경에 부응하는 문학적 상상력의 일환이다.

소설의 배경인 60년대는 62년부터 2, 3차 산업의 성장을 골자로 1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이 시작되어 한국 사회가 농업 중심의 촌락 공동체가 아니라 산업 중심의 근대 국가로 변모하기 위해 극적인 박차를 가하던 사회 변동기이다. 비록 공동 묘지 이전은 외국인의 발의로 이루어지지만, 60년대는 ‘한강의 기적’으로 불리는 개발 신화 속에서 전 국토가 파헤쳐지고 용도가 변경되는 대전환의 시기였다. 그러나 60년대 근대화는 비록 그 성격과 내용은 다르지만 한국사에서 서양의 계몽주의에 대응할만한 사상혁명/정신혁명을 야기했다. 대통령 박정희의 “산업혁명에 의한 경제적 빈곤의 극복 없이는 자유니, 인권이니, 민주주의니 하는 일련의 가치체계가 결국은 공염불화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은 개발기의 시대 정

---

를 둔 것임을 밝힌 바 있다. 작가의 회고를 바탕으로 볼 때 이 소설의 배경은 실제로 공동 묘지 이전 공사가 이루어진 1965년 가을로 추정된다. 작가의 가족사 등과 관련한 자전적 체험에 대해서도 다음의 글을 참고할 것. 이문구, 『남의 하늘에 붙어 살며』, 강은교 외, 『나-오늘의 작가들이 털어놓은 문학적 고백』, 청람, 1987, 92-131쪽.

신으로<sup>3)</sup> 노동을 숭상하며 근면·자조하는 개인의 탄생을 부추겼는데, 그 근간에 자리한 것은 실용주의 정신이었다. 개발은 단지 공간을 합리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연에 순응하며 전통적 질서 속에서 ‘덕(德)’의 가치를 추구해온 이들을 이익을 위해 분투하는 ‘경제적 인간’으로, 더 나은 미래를 기약하며 자기계발하는 개인으로 변모시킨 것이다. 즉, 산업화/개발은 민족적 재난의 기억을 떨쳐 내지 못한 우울증적 개인들을 생존을 위해 경쟁하는 경제적 개인/근대적 개인으로 쇠신시키는 과정이었다.

개발기 문학의 대표적인 작가인 이문구의 『장한몽』은 근대화가 국토의 개발 전략에 머물지 않고, 전통 사회의 문약(文弱)한 남성을 근대화 기획의 주체로 호명하는 ‘남성성 프로젝트’임을 보여준다. 주인공 김상배는 데릴 사위로 처가의 눈칫밥을 먹는 데 따른 자괴감에도 불구하고, 한국 전쟁기에 피붙이들을 잃은 뒤 마음의 갈피를 잡지 못해 허송세월해 왔다. 그러나 김상배는 아내의 출산과 장모의 미국 이민이 임박하자, 능력을 갖춘 가장이 되기 위해 한성학원으로부터 공동 묘지 이장 사업을 불허받아 경쟁의 시장에 뛰어 들게 된다. ‘이장/매장’ 사업은 우울증적 인물인 상배가 그늘진 마음을 벗어나 능력 있는 가장, 더 나아가 사회인으로 태어나기 위한 도전이자 실험이라는 점에서 단순히 하나의 일거리에 그치지 않는 성의 통과제의이다. 또한 『장한몽』은 하위 계급 남성들의 극한(極限) 생존기이다. 10여 명 인부들은 비록 막일꾼이지만, 공동 묘지 이장 사업에 고용되어 장기간 뚜렷한 일자리를 갖게 되자 서울에 뿌리를 내리기 위한 투쟁에 나선다. 이들은 공동 묘지 사업에서 몫 돈을 벌여 가족의 생계를 책임질 수 있는 가장이 되거나, 결혼 자금을 마련해 노총각 신세를 벗어나는 식으로 남성적 권위를 획득하기 원한다. 공동 묘지 이전 사업은 가정의 구성을 통해 한 사회에 소속되는 한편으로 권위를 가진 남성이 되기 위한 남성성 프로젝트인 것이다.

김상배를 비롯한 막일꾼들은 살아남기 위해 불법 혹은 변칙적인 방법

3) 황병주, 『박정희와 근대의 꿈』, 『당대비평』 28호, 생각의 나무, 2004, 200쪽.

을 마다하지 않아 ‘악한(惡漢)’의 면모를 보여준다. 이문구는 악한으로서의 남성성을 멜로의 의장(擬裝)을 씌워 알리바이화하는 대신에 보여주는 편을 택한다. 이 작품이 이문구 문학 연구자들에게 그다지 주목받지 못한 것은 남성성의 민낯을 폭로하는 적나라한 에피소드와 사실주의적 문체때문이다. 작중 남성들은 살인만 아니라면 속임수, 협잡, 도둑질 등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가난과 소외에 굴복하지 않기 위해 분투한다. 이들의 물불을 가리지 않는 막무가내식 생존 전략은 “왁살스러우면서도 대범하고, 강인하면서도 구수하며, 영악하면서도 건강한”<sup>4)</sup> 것으로 여겨질 만큼 한국문학사에서 낯선 것이다. 한국문학사의 남성 주인공/화자들은 오랜 식민 체험과 전쟁의 시간 속에서 내상을 입은 지식인/예술가이거나, 전후 손창섭의 소설 속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경쟁에서 도태되거나 전쟁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등 남성성을 결핍한 존재들이기 때문이다. 사회와 불화하는 문사거나 신경증을 앓는 백수 혹은 잉여인간은 한국문학의 친숙한 남성 주인공들이다. 반면에 『장한몽』에서 남성들은 ‘뭉든지 하면 된다’를 외치는 행동주의자들로, 정감이 풍부하기 때문에 섬세하고 나약하기도 한 전(前)시대 문학의 남성 인물과 구별된다.

이들은 비루할 뿐 아니라 부도덕한 방식으로 삶을 꾸리고 각종 모멸적 상황에 노출되지만, 자기 자신의 행위에서 비롯된 수치심으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하거나 혹은 그것을 근면과 자조의 증거로 합리화한다. 이문구는 가진 것 없는 남자들의 비루하고도 추악한 생존기를 통해 전통 사회에서 우월한 위치에 서 있던 남성들을 한낱 비천한 존재로 추락하게 만든 근대화에 대한 비판을 의도한다. 살아남기 위해서 인간적 품위나 양심 따위를 쉽게 외면하는 인물들을 통해 근대화라는 시대 정신의 공허하고도 위선적인 정체를 폭로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적 의도에도 불구하고 부도덕한 삶의 방편보다 이들이 사회적 하위계급으로서 겪은 모멸에 찬 인생사를 전면화함으로써 가치 판단에 있어 모호한 태도를 취한

4) 김병익, 『한에서 비극으로-이문구의 『장한몽』, 『장한몽』, 책세상, 1987, 438쪽.

다. 동시대의 비평가 김병익이, 우리의 정신사는 한(恨)의 역사였고 속명과 윤희에 대한 도전이 거의 없었는데 『장한몽』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여 도전한다는 근대적 의지를 소유하게 된 증거라고 고평하는<sup>5)</sup> 것은 작가의 무의식적 의도가 어떻게 읽히는가를 보여준다. 더 나아가 이러한 사태는 막무가내식의 무원칙하고 무도덕한 삶의 방식도 관용될만큼 빈곤의 극복은 개발기 공동체의 목표이자 절대적인 가치였음을 역설하며, 개발기 한국 문학 역시 남성적인 국가의 규율체제, 즉 개발의 정치공학으로서 남성성 이데올로기에 대한 비판적 거리를 상실하고 있음을 뜻한다. 『장한몽』은 한국문학의 내밀한 이행과 변이를 매우 징후적으로 보여주는 텍스트라고 할 수 있다. 국가 주도로 산업화가 본격화되고 일정한 성과를 내면서 문학사에서 신분 이동을 위해 매진하는 남성 주인공이 등장하는 한편으로, 지식인/중산층 남성의 자질이었던 감성은 여성의 특성으로 분류되며, 도덕 감정이 아니라 한낱 사유의 무능력을 증거하는センチ멘탈리즘(sentimentalism, 감상주의)으로 전락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살아남기 위해서 분투하는 이들에게 인간을 인간으로 만드는 도덕 감정으로서는 수치심은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불편한 감정으로 여겨져 외면되는 것이다. 수치심의 심문을 외면하기 위해서라도 남성성은 남성 인물들의 목표 혹은 시대의 이데올로기가 되어야 했던 것이다.

『장한몽』은 개발이 도시 공간을 효율적으로 재편성하는 국토의 개발 전략에 머물지 않는 남성 주체의 자기 개조 사업임을 드러내는 텍스트이다. 개발은 남성들에게 명분주의적이고 이상주의적이면서 현실 생활에서는 나약하고 상호 의존적인 전통적 남성성을 벗어나 생존 주체로서 근대적 남성성의 자질을 획득해 가도록 명령하는 인간 개조 프로젝트이다.<sup>6)</sup>

5) 김병익, 『한의 세계와 비극의 발견-『야호』와 『장한몽』』, 『현대 한국문학의 이론』, 김병익 외 3인 공저, 민음사, 1974, 296쪽.

6) 최원식은 송강 정철로부터 만해 한용운 등 시문학에서 남성 시인이 여성 화자의 목소리를 차용하거나 여성으로 전환하는 현상들을 분석하고 있다. 이 글은 전근대 사회와 달리 근대 문학이 남성의 체험과 각성을 중심으로 성별화된 주체성을 획득하는, 즉 생물학적 성별과 문화적 젠더를 일치시키는 상징적 장임을 암시한다.

전통/근대, 농촌/도시로의 이동과 전환 속에서 남성들은 신분 상승의 열망 속에서 진취적인 행위자로서 자기 전환을 시도했다. 소설 속 하위 계급의 남성들은 경쟁의 도시 서울에서 비록 중산층 남성들에 비해 생존의 자본이 취약하지만, 현실에 순응하지 않고 제 몫을 찾기 위해 분투하는 한편으로, 여성 혐오를 통해 성의 기득권을 챙기려고 하는 남성우월주의자(대항적 남성성)들이다.<sup>7)</sup> 이문구는 명분과 의리로 상징되는 중세적 선비 사회가 아니라 개발 전사들이 활보하는 시대 풍경 속에서 김승옥 소설로 대표되는 중간 계급의 ‘지배적 남성성’이나 최인호, 조해일 등 청년 문화운동 세대의 퇴폐적이고 우울증적 남성성과 구별되는 남성성 서사의 한 유형으로서 하위계급 남자들의 전성시대를 보여준다. 도시 빈민 남성의 부양자/남성성 획득이라는 주제는 문학 장의 순수와 참여, 민중주의와 문학주의의 대립 구도가 무색하게, 문학이 기실 ‘지배적 남성성’을 획득하지 못한 남성들이 남성적인 것의 실패에서 오는 열등감을 토로하고 문학적 상상력의 투기를 통해 남성성 획득을 시도하는 젠더 투쟁의 장이 되어왔음을 보여준다.<sup>8)</sup>

최원식, 『여성주의와 아버지 부재의 문학적 의미』, 『여성해방의 문학: 또 하나의 문(3)』, 평민사, 1987, 332-344쪽.

7) R. W. 코넬은 젠더를 일종의 수행이라고 전제한 후, 남성성은 단일하지 않은 복수(複數)성으로서 한 사회의 지배계급과 하위계급 남성들은 헤게모니적 남성성(지배적 남성성)과 대항적 남성성이라는 서로 다른 남성성을 발전시킨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는 헤게모니적 남성성의 범주로 시민/전사, 가부장, 후원자, 프로테스탄트 부르주아 이성주의의 모델 등을 들고, 이렇듯 백인 중산층 이성애자 남성의 남성성의 다른 한편에 동성애자 남성 같은 ‘중속적 남성성’과 계급이나 인종이라는 변수가 개입된 ‘주변적 남성성’이 있었다고 분석한다. 코넬은 주변부 남성성이 남성성의 결여라는 자신들의 취약성을 지배적 남성성과의 대결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 혐오에 가담함으로써 여성 중속을 통해 남성의 기득권을 얻고자 한다고 비판한다.

R. W. 코넬, 『남성성/들』, 안상욱·현민 역, 이매진, 2013, 129-136쪽.

8) 이 작품에 대한 기존 연구 중 본고와 관련이 깊은 논문은 다음과 같다. 광영희, 『자기 발견과 치유의 여정 -이문구의 장편 장한몽을 중심으로』, 『한중인문학연구』 27권, 한중인문학학회, 2009, 61-83쪽; 임경순, 『내면화된 폭력과 서사의 분열: 이문구의 『장한몽』』, 『상허학보』 25, 상허학회, 2009, 309-348쪽; 이정숙, 『개발주의서사의 ‘성-섹슈얼리티’에 대한 ‘혐오-연민』, 『여성문학연구』 36권, 한국여성

## 2. 분단 체제 하의 유명들과 금지된 애도

『장한몽』은 개발 독재의 사회에서 남성이 된다는 것은 자유롭게 이념을 선택하거나 정치 권력에 저항할 수 있는 시민적 주권을 포기함으로써 정신적 거세를 수용하는 대신에 가장/부양자의 권위를 획득하는 과정임을 보여준다. 앞서 말했듯이 김상배는 하릴없이 소일하고 술에 취해 있기 일췌인 백수로 아내와 처가 식구들로부터 “현실을 등진 등걸 같은 위인”으로 불리며, 스스로 처가의 묘 관리자 격인 “능참봉 정도의 존재”(1권, 19쪽)로 조소할 만큼 열패감에 시달리는 인물이다. 그러나 그는 대학 동창인 성식의 제안으로 묘지 이장 사업에 뛰어들게 되면서 정신적 변화를 겪는다. 그에게 새로운 사업이 단순히 경제적 수익 창출을 위한 일거리가 아님은 사업 진행 과정이 일종의 정신적 독립 혹은 성장 서사로 그려지는 데서 알 수 있다. 김상배는 시체를 만지는 일이 아이의 탄생에 화를 미칠지 모른다는 장모의 우려로 집을 나와 여관에 거처를 마련하게 된다. 가출은 강요된 것으로 데릴 사위인 상배의 취약한 위치를 보여준다. 그러나 기실 상배는 가출로 인해 부유한 장모와 전문직 엘리트 처제들로 여초(女超)화된 처가를 벗어나 비로소 남자가 될 기회를 얻었다고 볼 수 있다. 가부장제 사회의 공사영역의 성별 이분법에 의하면, 가정은 여성이 법적으로 위치를 부여 받은 유일한 영역으로서 남성성을 위협하고 거세하는 공간이다. 남자다움을 실현하기 위해 가정으로부터 탈주하는 남성의 이야기는 근대 문학의 보편적인 모티프이다.

그러나 전후 박정희 정권에 의해 주도된 근대화는 반공주의를 한 축으로 삼은 것이라는 점에서 김상배의 남성성 획득의 서사는 분단 체제와의 화해 혹은 갈등 조정이라는 내면적 과정을 필요로 한다. 먼저 그는 습관화된 무기력을 안겨 줘 자신을 거세된 남성 혹은 루저로 내 몬 전쟁의 상흔과 대면하지 않으면 안 된다. 김상배는 소년 시절에 육이오 전쟁으로



단란한 가정이 풍비박산(風飛雹散) 나는 트라우마를 겪는다. 건설하나 순진하기만 한 농부였던 아버지가 만세를 잘못 부른 탓에 국군의 폭격으로 비명횡사한 것이다. 그러나 비극은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으로 그치지 않고 가족 모두를 끌어 들인다. 상배의 형은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분노와 신여성인 약혼자의 영향으로 죄의 활동에 적극 가담한다. 그러나 하루 아침에 통치 권력이 바뀌는 불안정한 전쟁의 상황 속에서 다시 국군 치하가 되자 경찰의 고문 끝에 육신이 갈가리 찢겨 조각나 서해 바다에 수장된다. 아버지와 형의 죽음은 명민한 소년인 상배의 삶을 바꾸어 놓는다. 그는 죄의 가족의 생존자로서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것을 삶의 유일한 목표로 삼은 듯 숨 죽여 살아왔다. 특히 형의 죽음은 시간이 지나도 쉬이 씻을 수 없는 아픈 기억, 즉 트라우마가 되었다. 이는 묘지 이장은 단지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한 사업이 아니라 감삼배가 자신의 마음 속을 차지하고 있는 죽은 자를 토해내 상(喪) 중의 삶을 끝장내고, 현실로 복귀하기 위한 내면적 여정의 성격을 띠는 것을 뜻한다.

상배는 사랑하는 이를 잃고 그 주검을 떠나 보내지 못한 채 자신의 마음 속에 합체하고 있는 식인(食人) 주체, 즉 벨랑콜리아이다.<sup>9)</sup> 그는 과거에 발이 묶인 채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는 우울증적 인물로 처가 식구들로부터 “갑오경장 직후에나 더러 있음직한 세월 지난 인간”, “요즘 세상 돼가는 푼수로 미루어보면 눈 감고 살려준대도 쓸 자리가 없는 위인”(1권, 18-19쪽)이라는 조롱의 대상이 되어 왔다.<sup>10)</sup> 상배는 애초 성식

9) 프로이트의 『슬픔과 우울증』(1917)에 따르면 ‘애도’와 ‘벨랑콜리’는 모두 사랑하는 이를 상실한 후의 반응으로 ‘고통스러운 낙심’ ‘세계에 대한 무관심’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의 상실’ ‘억제(자아가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의 저하) 등의 특징을 공유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해소되는 슬픔인 애도와 달리, ‘벨랑콜리’는 자존감의 저하를 가져올 뿐 아니라 상실자를 영원히 끝나지 않을 슬픔 속에 가둔다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추후 아브라함이나 멜라니 클라인은 애도와 벨랑콜리 간의 양극화된 설명 방식을 비판하며, 양자의 차이가 크지 않다고 주장한다. 지그문트 프로이트 저, 『슬픔과 우울증』, 『무의식에 관하여』, 윤희기 역, 열린책들, 1997, 243-270쪽.

10) 트라우마의 시간은 진보를 뜻하는 직선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되돌아오는 나선이며, 사건의 얼굴은 동질적이다. 트라우마는 자발적 기억이 아니라 의지와 무관하

의 묘지 이장 사업을 단호하게 거절하는데, 이는 애도할 수 없는 우울증 자로서 상배의 내면을 비춘다. 이장은 무덤을 파헤쳐 사자(死者)를 불러 내 추방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더우기 신천동 산 5번지는 버려지듯 매장된 시체들의 거처이다. 태어나 얼마 살지 못한 아기들, 제대로 된 장례식을 치를 수 없었던 빈민들, 신발을 신은 채 매장될 만큼 비밀을 품은 죽음들은 원한에 휩싸여 있을 수 있기에 절대적 공포를 불러 일으킨다. 그러나 상배는 “넌 매사에 지는 경우부터 계산하는 버릇이 있는데, 그따위로 마음부터 밀치고 들어가니까 물질의 가난의 면치 못하는 거여.”(1권, 13쪽)라는 성식의 압박 반, 자신의 결의 반으로 묘지 이장 사업에 나선다. 그 결과 그는 을씨년스러운 공동 묘지에서 외롭게 버려진 시체들 속에서 오랜 시간 퐁퐁 싸매둔 자신의 상처와 대면하게 된다.

『장한몽』은 공동 묘지가 형성된 기원인 한국 전쟁기로 되돌아가 공동체가 낱알 삼켜 버린 죽음들을 이야기한다. 김상배와 공사관의 막일꾼인 구분칠처럼 이념 전쟁에 의해 가족이 비명횡사 당하고도 애도를 금지당한 유가족의 슬픔을 통해 인간성을 억압하는 분단체제를 비판하는 것이다. 전후 국가는 현충일 등 추모 사업들을 통해 전쟁의 희생자를 기억하고 애도하는 주체가 되어 왔다. 그러나 애도의 국가주의는 민족과 국가를 위해 누가 더 헌신하고 희생했는가를 중심으로 죽음의 서열을 만들어냄으로써 애도 역시 위계화했다. 애도되어야 할 존재와 그렇지 않은 존재를 구분하고 경계 지은 것이다. 특히, 애도가 남한 정부의 기원과 정체성을 분명히 해 줄 국가의 기념 사업이나 정치 의례가 됨으로써 반공 국가의 이념적 순결성을 훼손하는 ‘비국민’에 대한 추모는 금지된다. 또한 반역자의 유가족은 공동체로부터 추방된 이방인, 난민과 다를 바 없는 위치에

---

게 회귀해오는 폭력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불시에 사로잡아 점령의 폭력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나’를 철저히 무력하게 만든다. 인간 생존의 가장 근원적인 추진력인 나르시시즘을 훼손하고 세계에 대한 신뢰감을 박탈함으로써 시간이 지나도 뭉개지거나 흐릿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현재진행형의 시간이다. 오카 마리, 『기억 서사』, 김병욱 역, 소명출판사, 2004, 89쪽.

놓인다. “국민국가는 국민과 난민, 시민과 인간 그리고 ‘삶의 형태’와 ‘별거벗은 생명’을 상호 분리시키는 경계”<sup>11)</sup>로 국민은 국가에 의해 인권이나 생존권을 보장받고 귀속성과 정체성을 인정받을 수 있지만, 난민은 그렇지 못한 것처럼 좌익 가족인 김상배는 조용한 삶을 강요당한 채 열등 의식을 생래적 체질인 양 성격화한다. 그는 국민 국가의 일원이라면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자유/권리를 갖지 못하고, 주인의 환대가 베풀어질 때만 체면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는 노예, 즉 비국민으로 유명화된 삶을 살아온 것이다. 김상배는 실제로 국가 기구의 감시나 사찰을 받음으로써 사생활의 자유를 누리지 못했고, 연좌제로 인해 학교 교사로 평범하게 살아가기를 바란 어머니의 소원조차 들어줄 수 없었다.

이렇듯 그와 가족이 겪은 불행이 인간의 상상력을 초과하는 것임은 형의 잔혹한 죽음 장면을 통해서 그려진다. 상배의 형은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에 복수한 대가인 양 경찰에게 잔혹한 고문을 당한다. 가족의 억울함을 호소하던 헛바닥이 뿔히고, 성기가 잘려 함께 붙들려온 약혼자의 성기 속에 삽입되는 극한의 폭력과 모멸을 겪는다. 상배의 형이 겪은 참혹한 고문은 상배가 전해 들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진위를 확인하기 불가능하지만, 상배의 마음 속에 쉬어 시간이 지나도 지울 수 없는 상흔을 남긴다. 그 결과 사자(死者)는 그의 마음과 기억 속에서 유명으로 거주하게 된다. 죽은 이를 자신의 삶 속에 끌어 안았다는 점에서 납골함이 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다. 김상배는 사자(死者)에게 스스로를 통째로 내어준 우울증자로서 그간 “보통 사람들은 제반 만사에 승리를 거둬도 모두 눈이 벌개 가지고 법석인데, 완전히 참패해야만 안온하고 안정되던 마음”(하권, 93쪽)을 얻는 패배자로 살아온 것이다.

그러나 상배의 무기력한 삶은 부자유한 상황의 결과로만 볼 수 없는 주체의 자발적 의지이기도 하다. 반역자를 추모하지 않는 것이 국법이라면 애도는 국법보다 더 상위에 있는 것이 가족을 섬기는 것이고, 비록 적

11) 하용삼·배운기, 「경계의 불일치와 사이 공간에서 사유하기-G. 아감벤의 국민·인민, 난민을 중심으로」, 『대동철학회』 62집, 대동철학회, 2013, 86쪽.

군이라고 할지라도 죽은 자에게 안식을 취하도록 허락하는 것이 정의라고 주장함으로써 국법에 저항하는 것이기 때문이다.<sup>12)</sup> 상배가 대학 중퇴자이자 병역기피자로서 사회 속에서 어떤 유용한 노동력도 ‘되지’ 않은 것이야말로 지극히 수동적이지만 또 생애를 건 투쟁일 수 있다. 가해자는 피해자가 쉽게 시간이 지나면 잊고 일상 속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믿음으로 죄책감으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한다. 이에 맞서 피해자는 자신의 인생을 저당잡혀서라도 기억이 희미해지지 않도록 과거를 사는 것이다. 그러나 자녀의 출산을 앞둔 그는 과거의 회한에 젖는 대신에 “정신적인 손익 계산에만 전념”하는 탈이념, 탈정치의 수학적 세계 속으로 발을 내딛고자 한다. “나도 보통 사람일 수가 있을까.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인가.”(상권, 125쪽)라는 절망적 심정 속에서 원한에 찬 마음을 버리고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속악한 이들만이 살아남는 생존의 전장, 즉 세상에 입사(入社)하고자 하는 것이다. 여기서 “보통 사람”은 신분이나 계급의 측면에서 평균치의 사람이 아니라 생활 감정이나 가치관의 차원에서 세속의 흐름을 충실히 좇아가는 무비판적이고 순응적인 개인을 의미한다. 즉, 그는 원망과 분노를 멈춤으로써 자신이 속한 사회와 화해하고 싶은 것이다. 구체적으로 그는 대자연에 아버지와 형의 외로운 혼을 의탁함으로써 비록 부조리한 권력이지만 난민의 처지를 면할 수 있는 국민이 되고자 한다.

“그것을 그는 흠의 너그러움이라고 매듭지었다. 그리고 그 결론은 자기

12) 소포클레스의 비극 『안티고네』는 국법에 복종하는 시민의 의무보다 인간의 정의가 더 고귀한 가치임을 확인시킨다. 안티고네는 국가의 왕인 크레온이 저지른 불의 앞에 반역자로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들판에 버려진 오빠의 죽음을 슬퍼할 권리, 즉 사랑하는 이를 애도할 가족의 권리를 내세운다. 그녀에게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슬픔에 충분히 침잠하는 것은 목숨을 바쳐서라도 지켜야 하는 인간의 가치이다. 이는 애도가 시민의 의무보다 더 고귀한 인간 사회의 보편적 가치임을 뜻한다(소포클레스, 『오이디푸스왕 안티고네』, 천병희 역, 문예출판사, 2006, 264-340쪽). 김상배의 무기력한 삶은 사랑하는 이를 잃은 슬픔으로부터 빠져 나오기보다 슬픔 속에 자신을 던져 넣음으로써 누구도 슬퍼할 권리를 빼앗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애도 금지를 명하는 국가에 대한 불복종 행위라고 할 수 있다.

도 보통 사람의 무리에서 예외가 아니라는 증거라고 믿었다. 흠의 어질고 너그러움을 터득한 것은 흠의 생명을 깨달은 것이기도 했다.

흠의 생명, 그것은 수목과 못짐승들을 기르는 대자대비였고, 눈에 들어오는 모든 것과 너무 위대하여 보이지 않는 것에 이르기까지, 품으로 감싸안지 않는 것이 없을 정도의 큰 힘이였다.

그러나 김상배가 아는 어질고 너그러운 흠의 힘은 먼저 살아 간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그 태도에 있었다.

흔한 말을 흔케 쓰다보면 허탕지거리밖에 안 되지만, 실로 그가 일 나가는 현장에 가득한 것은, 사람은 한줌의 흠이라는 말이었다.“(1권, 9쪽)

인용문에서 자연은 단순히 시골이나 농촌이 아니라 결코 어긋남이 없는 조화와 질서의 체계를 뜻하는 우주의 신비를 의미한다. 그것은 악한 자를 물리고 슬픔에 사로잡힌 자를 어루만진다는 점에서 인간을 구원할 초법적 정의라고 볼 수도 있다. 이 소설은 흠, 즉 자연을 인간의 마음 속에 담긴 모든 원한들을 포용함으로써 마음을 사로 잡아온 원망과 슬픔으로부터 자유롭게 해 삶을 지속해 나가게 하는 대자대비한 보살핌으로 의미화한다. 그러나 이는 상배가 반공주의 국가에서 비국민으로 낙인 찍힌 타자들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애도가 이루어질 수 없음을 수락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이러한 판단을 뒷받침하는 것이 이장 사업에 막일꾼으로 참여하는 구분철의 각성담이다. 구분철은 김상배와 유사한 기억과 상처를 품고 살아온 인물이다. 그는 한국 전쟁기에 경찰인 아버지가 죄익에게 처참하게 살해당한 주검을 목격하고 아버지를 살해한 원수를 산 채로 매장함으로써 스스로 초법적 주체가 된다. 아버지와 가족의 억울함을 풀어줄 공정한 사법적 주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사회 계약을 무시하고 ‘자연권<sup>13)</sup>을 집행한 것이다. 그러나 사람이 아니라 악마를 죽였다

13) 존 로크는 자연상태를 벗어나 공동체(국가)를 결성한 사람들은 모두 암묵적으로 계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자연상태에서 모든 개인들은 자유롭게 평등하다. 그러나 그들은 계약을 맺음으로써 자연상태에서 누렸던 자유를 일정 정도 포기하는

는 확신에도 불구하고 구분철은 죄의식에 사로잡힌 채 스스로를 벌 주듯이 험하고 궂은 일을 하며 살아왔다. 구분철은 보복이나 복수가 정의를 바로잡는 방법일 수 없으며, 남은 자의 죄책감과 원한 역시 달래주지 못한다는 작가의 생각을 전달하고 있는 인물이다.

상배는 초자연적 정의에 대한 믿음에 기대어 과거의 원한과 상처로부터 자유로워지고자 한다. 그는 훗날 신문에서 형을 잔인하게 고문한 경찰이 자신의 아들에게 살해당했음을 알고, 우주의 치밀한 각본을 보는 듯한 충격에 휩싸인다. 그리고 모종의 깨달음 속에서 복수의 욕망으로부터 놓여난다. 소설의 제목인 ‘장한몽(長恨夢)’, 즉 “깊이 사무쳐 오래도록 잊을 수 없는 마음”처럼 전쟁은 상배를 “한을 유산으로 상속받은”(192쪽) 비극적 인물로 만들었다. 그러나 김상배는 자녀의 출산을 앞두고 개발의 전사가 됨으로써 자신의 내면을 사로잡고 있는 형의 망령을 추방한다. 그는 이제 자신을 괴롭히던 가족의 명령을 끌어안은 무덤지기의 삶을 내려 놓고, 생존경쟁 더 나아가 신분상승의 격전지인 사회 속으로 들어간다. 그는 묘지 이장 터에서 처음에 죽은 자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갖지만, 차차 시체를 이익을 얻기 위한 상품으로 여기게 되어 뭇돈을 거머쥐게 된다. 그리고 소설의 말미에 이르면 아들의 탄생으로 아버지가 됨으로써 마음의 정처를 둘데없는 우울자가 아니라 인생의 확고한 목표를 가진 부양자/가장, 즉 ‘보통 사람’이 된다.

### 3. 민중 약전의 형식과 음담패설체의 탄생

『장한몽』은 생존 의지 외에 가진 것 없이 경쟁의 시장 속에 던져진 하위 계급 남성들에 대한 이야기이다. 이들은 자신의 터전을 떠나 서울에 흘러들어온 이산자(離散者, diaspora)로 학력, 재산, 계급, 인맥 등 생존

---

데, 그 중의 하나가 처벌권을 그들 중에 임명된 사람이나 단체에게 위임하는 것이다. 존 로크, 『통치론』, 조현수 역, 타임기획, 2005, 152-153쪽.

에 유리한 자본을 갖지 못한 채 지독한 가난과 불투명한 미래 속에서 하루를 버텨온 도시 뜨내기들이다. 이름만 국민일 뿐 실상 삶에 필요한 기본적 자원도 확보하지 못한 채 공동 묘지 근처에서 불법적으로 기숙한다는 점에서 ‘난민(難民)’에 가까운 신세다. 이렇듯 취약한 위치에 선 이들에 대한 공감의 표현인 양 작가는 마치 무대 위 배우들에게 조명을 비추듯 각 인물들이 어떤 사연을 거쳐 신천동의 묘지까지 오게 되었는가를 공들여 서술한다. 마감록이라는 별칭으로 불리는 ‘십장’ 마길식, 전쟁 때 아버지를 죽인 홍승로를 처단한 후 죄의식에 시달리는 구본철, 백정 출신의 월남민으로 공사장에서 육화가 덜 된 뼈를 해체하는 일을 하는 유한득, ‘하면 된다’ 주의자인 노총각 왕순평, 화장실 낙서로 학교를 중퇴하고 심부름을 도맡아하는 고장윤, 어린 시절 지독한 가난으로 수난과 모욕을 당한 홍호영, 교회 권사로 잘 나가는 사업가였으나 정치폭력배에게 이권을 빼앗긴 후 반공을 내세워 사기를 치기도 했던 박 영감, 이해타산에 밝으며 공사판에서 사용자 측에 맞서는 이상필, 절에 들어가 인생의 이치를 따져보려 했으나 소녀를 강간할 뻔한 후 다비장이 된 모일만 등은 생생한 에피소드와 뛰어난 문장과 함께 강렬한 인상을 안겨 준다. 비록 비중이 동등하지는 않지만 이들을 서사의 전개 과정에서 등장했다가 사라지는 ‘역할’로 환원하기 어렵다. 이문구는 일종의 작가 윤리로서 척박한 시대를 산 이들의 고단하고 참담한 삶을 숨겨둔 인생의 속내를 포착함으로써 하위계급을 향한 사회적 혐오나 비하의 시선과 맞서고자 한다.

이들의 곡절 많은 인생은 마치 요약본 형식의 민중 약전 형식을 취하고 있어 독자의 연민을 유발한다. 가령, 삼형제의 만형인 유한득은 백정이라는 신분 상 모멸과 천대에서 벗어나 ‘인간’이 되고 싶어 고향을 떠난 월남민이다. 그러나 월남한 후에도 짐승을 잡는 일에서 놓여나지 못한다. “모욕감과 비굴함에 사로잡혀 젊음의 보람을 깨우치지 못하거나 고통을 고통으로 살아야 되는 고통스러움”에 시달리는 밑바닥 인생들이라는 표현은 사회적 약자로서 하위계급의 시난고난한 삶을 보여준다. 이는 하위계급에 대한 혐오의 시선을 벗어나 고통이 무엇인지 아는 인간의 보편적

감각에 호소하는 것이지만, 독자의 도덕적 판단을 저지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sup>14)</sup> 상배가 가장 신뢰하는 마길식은 공업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월남전에 기술자로 참전하지만 밀주를 만들어 팔다가 걸려 강제 귀국당한 사기꾼이다. 그는 자신도 막일꾼의 처지이면서 고용주인 상배의 오른팔이 되어 막일꾼들의 권리를 빼앗을 계락을 짠다. 그러나 이렇듯 기회주의적인 면모는 제갈량의 지혜에 비유되거나 우정이라는 이름으로 미화된다. 모일만 역시 절에서 소녀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고, 홍영감은 한때 반공단체를 만들어 가가호호 회비를 뜯어 챙기는 것으로 생계를 유지해왔다. 구분칠은 사람을 죽인 살인범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러한 이력은 법과 윤리 의식의 결여를 보여주는 약점이 아니라 사회적 지위가 낮은 남자가 척박한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불가피한 몸부림으로 그려진다.

조혜정에 의하면, 산업 사회는 전투적인 남성성, 남성 간 연대 등이 요구되는 전 시대와 달리 개인의 능력 개발과 취향 위주의 분업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본래 ‘젠더 리스’의 성격을 갖는다. 그러나 산업 사회에서 남성다움은 위기에 처함으로써 더욱 더 강화되는 양상을 띤다. 개발기 한국인의 생활 세계를 주도해온 이데올로기는 ‘경제 발전’으로서, 모든 남성들은 ‘책임 있는 가장’이자 믿을 수 있는 ‘고용원’으로 새롭게 태어날 것을 요구 받았다. ‘남성다운 남성’은 책임·결단·독립성·성취주의·힘, 그리고 합리성을 갖춘 인간상으로 요약된다. 이는 명분주의적이고 이상주의적이면서 현실 생활에서는 상당히 나약하고 상호 의존적인 전통적 남성성과 산업 사회의 남성성에 깊은 단절이 형성되어 있음을 뜻한다.<sup>15)</sup> 산

14) 루소는 “내가 불행한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것은 불행을 알기 때문이다”는 로마의 시인 베르길리우스의 문장을 인용해 인간은 자신도 예외가 아니라고 생각되는 불행과 관련해서만 다른 사람을 동정한다는 점과, 타인의 불행에 대해 느끼는 동정심은 그 불행의 크고 작음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기울인 감정에 의해서 측정된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장 자크 루소, 『에밀』, 김중현 역, 한길사, 2009, 398-401쪽.

15) 조혜정, 『‘남성다움’의 구성과 재구성』, 『한국의 여성과 남성』, 문학과지성사, 1988, 241-251쪽.



업 사회에서 남성다움은 정신적이고 도덕적인 의미가 아니라 경제 생활에서 진취적인 행위자의 자질을 갖는 것으로 나타난다. 구체적으로 상배의 성숙을 결정하는 것은 공동 묘지 이전 공사비로 책정된 예산 55만원에서 각종 비용을 쓰고 약 9만 2천원이라는 몫 돈을 거머쥐는 것이다. 이러한 성과를 얻기 위해 그는 점차로 교활하고 영민한 전략가로 자기 무장을 하게 된다. 만약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지 못한다면, 사회와 가정 속에서 자신의 의미 있는 위치를 확보할 수 없다는 절박감은 그를 짓누른다.

따라서 공사장의 시신은 주체의 연민이나 공감이 금지된 사물 나아가 상품이 된다. 시체를 한 구는 얼마, 두 구는 얼마 하는 식으로 숫자로 셈하며, 시체에서 얻을 수 있는 부속의 이익을 추구하는 데 따른 죄책감을 느끼지 못한다.<sup>16)</sup> 이는 근대적 남성성이 남성의 비인간화를 야기하는 ‘소외’임을 뜻한다. 그러나 이 소설은 부양자/남성의 권위를 갖기 위해서라면 윤리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는 식의 현실론을 통해 남성을 도구화, 타자화하는 남성성 프로젝트의 한계에 대한 강력한 비판의식을 보여주지 않는다. 가령, 이들은 한 푼이라도 수입을 올리기 위해 시체에서 금이나 목걸이 같은 귀중품을 빼돌리거나 시체의 머리카락을 자른다. 심지어 이상필은 난치병의 치료약을 찾아 다니는 절박한 사람들을 이용해 간장 물을 시즙(屍汁)으로 속이려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들은 사회 속에서 능력 있는 시민 남성성 혹은 가장의 주체성을 획득하기 위한 안간힘으로 취급되어 연민어린 시신의 대상이 된다. 심지어 “사고와 생활방식의 건강함과 솔직함”, 즉 “생활 영역의 단순성 및 일반

16) 가장 공사는 철저하게 경제 논리에 의해 이루어진다. 인부들은 파낸 유골의 숫자에 따라 임금을 받는 만큼 최대한 많은 유골을 만들어내야 하며, 상배 역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끊임없이 머리를 쓴다. 가령 그는 육탈되지 않은 시신을 이장하려면 큰 관이 필요하고, 그것은 예상 외의 비용을 지불하게 하기 때문에, 개백정이라고 불리는 유한득을 고용해 시체에서 살을 떼어 발골만 하는 식으로 비용 절감을 위해 편법을 쓴다. 이에 대한 자세한 분석으로 임경순의 글을 참고할 것. 앞의 논문, 325쪽.

적인 윤리관이 어느 누구의 논리보다도 고차적인 실천”(상권, 101-2쪽)으로 추켜세워지기도 한다. 이러한 서술은 풍자적인 어조를 담고 있지만, “증산·수출·건설이 이땅의 윤리로 돼 있는” 사회라는 서술은 도덕 따위를 경시하는 개발주의에 대한 비판 못지않게 부도덕의 책임을 사회에 돌림으로써 개인에게는 면책의 알리바이를 만들어준다. 상배 역시 이익을 얻기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을 속일 수도 있다는 식의 태도를 취한다. 그는 성식의 조언대로 묘지 부근에 불법적으로 집을 짓고 사는 이들을 막일꾼으로 끌어 들인다. 무허가 주택의 거주자들이 반발하면 기술 학교 조성은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열 명의 인부들 역시 주거권 확보, 고용의 안정화, 적절한 임금 등을 약속 받고 싶어하자 국가 기구에 대한 사람들의 두려움을 이용하기 위해 개인 사업자가 아니라 서울 시청의 공무원인 양 행세한다. 또한 학식이 있고 셈이 빠른 마길식을 자신의 편으로 끌어 들여 일꾼들이 불공정한 계약의 조건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게 한다.<sup>17)</sup> 그러나 이러한 과정들은 ‘비윤리’가 아니라 상배가 열패감에서 벗어나 ‘보통 사람’이 되기 위한 절차로 합리화되며, 도덕보다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태도는 남성다운 자신감으로 미화된다.<sup>18)</sup>

“상배는 어느 정도 자신이 서는 것 같았다. 그 자신이란 건 이 공사의 성공적인 완수나, 인부 사역에 있어 뚝심대로 밀어나갈 수 있는 계산이며 추진

- 
- 17) 마길식은 소설의 마지막에 이르면 이상필 등 노동자들에게 집단 구타를 당하는데, 상배는 이를 마길식이 자신에게 보여준 우정으로 해석한다. 자신이 인부들의 무지와 취약한 조건을 이용하고 있다는 점을 성찰하지 않는 것이다.
- 18) 조지프 슈페터는 자본주의 문명은 경제활동을 통해 인간이 합리적 사고와 행동의 기본 훈련을 받게 했다고 주장한다. 경제적 패턴은 논리의 기본 기초이다. 경제활동에서 얻어진 합리적 습관을 일단 형성되기만 하면 유익한 경험이 갖는 학습 효과 때문에 인간 행동의 다른 영역으로 확산된다. 자본주의는 경제적 부문에서 규정되고 수량화된 타입의 논리, 태도는 인간의 사고와 철학, 인간의 의료활동, 우주관, 인생관, 미와 정의에 관한 개념, 그리고 그의 정신적 포부를 비롯해 사실상 모든 것을 자신 속에 예측시키는, 즉 합리화하는 정복자의 질주를 시작한다. 또한 자본주의는 근대과학의 정신적 태도뿐 아니라 인제와 수단도 만들어냈다는 것이다. 조지프 슈페터, 『자본주의·사회주의·민주주의』, 변상진 역, 한길사, 2011, 123쪽.

력을 뜻하진 않는다. 하려고 하면 할 수가 있고 따라서 뜻대로 이루기도 하겠다는 근본적인 자신이었다. (중략) 언제 어디서 어떤 일에 부닥뜨리더라도 미숙하지 않게 적응하여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하였다. 장사를 하게 되면 상술 商術에 필요한 양의 자신이고 싶었고, 이와 비슷한 혹은 다른 무슨 공사에 임할 때면 그 작업의 공정 工程과 규모에 들어맞아주길 바랐으며, 안으로는 아내와의 애정 교류와 가정을 가꾸는 데서도 진취적이며 생활적인 활력소이 어주도록, 아니 거기서 그치지 않고 늘 열패감과 좌절의 쓰디쓴 맛만 강요해 온, 장모를 비롯한 세 처제들과의 공동 생활에도 전에 없는 남성다운 기세와 책임감으로 변해가도록 진정으로 빌었던 것이다.”(하권, 63-64쪽)

이 소설 전체에 가득한 것은 노동의 피로를 위안해 주는 적나라한 음담패설 혹은 여성의 성적 육체를 향해 불타오르는/좌절된 욕망이다. 소설 속 인물들은 지배적 남성성을 원하지만 경제적, 문화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에 늘 시민적 권리를 부정당하는 하위계급 남성들이다. 이들은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급적 위치로 인해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자들에 비해 남자들이 쉽게 얻는 이익들, 즉 높은 경제적 지위나 좋은 직장 등을 얻지 못하고, 지배 계급에 자신의 권리를 요구할 기회조차 찾지 못한다. 그들은 이토록 곤궁한 현실 앞에서 빈곤의 맥락에 맞추어 남성성을 손질하는 식으로 대처한다. 지배 계급의 남성성에 항의하는 대신 여성 혐오를 통해 남성이라는 성적 신분을 특권화하고, 여성에 대한 차별을 지지함으로써 ‘가부장적 배당금’을 챙기는 것이다.<sup>19)</sup> 특히 이들은 정복적인 성 행위나 음란한 언어를 동원해 남성다움을 과시하고 여성을 혐오함으로써 열등함을 상쇄하고자 한다. 김상배는 집 밖에서 여관 생활을 하며 성적 욕구를 술집의 작부를 통해 해소한다. 그가 ‘홀러집’의 작부와 성적 교섭을 위해

19) 코넬은 가부장적 배당금이라는 표현을 통해 전반적인 여성 종속의 결과로 남자들이 이익을 얻는다고 주장한다. 이는 ‘주변부 남성들’이 헤게모니적 프로젝트와 공모관계를 맺는다는 것을 뜻한다. 여성 비하, 혐오, 헤게모니 종속, 공모는 젠더 질서 내부의 관계다. 앞의 책, 127쪽.

수작을 부리는 장면은 성매매를 남아의 풍류로 낭만화된다.

작중 남성들은 여성을 성적으로 대상화할 뿐 아니라 섹슈얼리티에 대한 비하 의식을 보여준다. 김상배는 묘지에서 파헤쳐진 무덤들 사이를 헤매며 무언가를 찾는 노처녀 최미실을 보며 빈번히 성적 욕망에 사로잡힌다. 노처녀인 최미실을 측은한 인생으로 비하하는 한편으로 “냅다 덤벼들어 잣뿔고 치마폭을 걸어올리고”, “언제고 시간과 장소가 적당한 계제를 타면 짐짓 미친 척하고 한번 건드려보리라 마음먹”(하권, 14쪽)는다. 그것은 고되고 비천한 노동 현장에서 상배가 자신의 남성적 권위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특히 다비장이 모일만이 여고생 성폭행 사건은 명백히 성적 폭력임에도 불구하고 다분히 유타미주의적으로 묘사된다. 모일만은 인간이 겪는 고통의 의미를 알기 위해 취선암에 들어가 수행의 시간을 갖지만 성적 욕망에 사로잡혀 산에서 내려오고 만다. 그가 병든 어머니와 함께 기도를 온 여고생에 대한 성폭행을 시도하는 장면은 노란 블라우스를 입은 소녀의 아름다움과 가난하고 고독한 사내의 외로움을 대비시킴으로써 가해자에 대한 연민을 유발한다.<sup>20)</sup> 소설 속 남성들은 대개 자신의 피로와 상처를 회복하기 위해 여자의 몸이 필요하다고 여긴다. 여자와의 성적 행위는 철저하게 내면을 배제한 유희로, 이들은 여자의 몸에 자신의 울분을 토해 내고 피로를 회복하여 가족과 사회 속으로 돌아간다. 이들은 살아가면서 받은 상처와 피로에 대해 이야기하는 대신에 여자를 구하고 응답 패실을 통해 남성다움을 잃지 않으려 한다.<sup>21)</sup>

이렇듯 작중 남성들의 마초적 행위에 대해 작가가 이렇다 할 비판적 거리를 취하지 않는 것은 공사장의 인부들이 성의 자유 시장, 즉 결혼과

20) 작가는 성을 인간의 문명이나 도덕을 넘어선 남성의 자연권으로 초점화함으로써 성폭력에 대해 느슨한 비판의식을 보여준다. 모일만은 인생의 의미를 알기 위해 수행 생활을 시작하지만 인간은 먹어야 살며 고기 냄새를 그리워하기 마련이라는 범속한 진실을 깨닫고 산을 내려온다. 이러한 구도는 시민적 권리를 남성의 성적 권리 정도로 축소, 왜곡하는 것이다.

21) 미즈타 노리코, 『창부 환상의 종언』, 『매매춘과 일본 문학』, 오카노 유키에 외 공저, 서기재 역, 지만지, 2008, 303-304쪽.

성매매 시장 모두에서 한 사람의 여자도 쉽게 차지할 수 없는 성적 약자라고 보기 때문이다. 노총각 왕순평의 여자 얻기의 고단한 사연이 암시하듯이 인부들을 성의 마이너리티로 표상함으로써 사회적으로 취약한 남성의 성은 충족될 권리가 있다는 식의 함정에 빠지는 것이다.<sup>22)</sup> 이로 인해 작가는 언어를 여성 혐오(misogyny)를 위한 자원으로 활용하게 된다. 한수영은 이문구의 소설에서 어휘와 문장, 또는 문체를 아우르는 ‘말’들은 이미 방법이나 묘사의 차원이 아니라 그것 자체로 하나의 주체이자 이념의 위치에 놓여 있다고 하면서, 소설 속 대화들은 발화자가 청자와 함께 공유하고 있는 사회적 조건들을 중층적으로 그리고 구성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이는 대화를 주도하는 중요한 컨텍스트가 있다는 것인데<sup>23)</sup>, 음담패설에 비견할 수 있는 문체는 남성을 건설의 행위자로 지칭하는 개발주의의 마초적 성격과 호모소셜한 남성 연대라는 지배 이념을 반영한다.<sup>24)</sup> 여기서 대화는 화행(話行)이 이루어지는 지배적 맥락을 비판하고 균열을 일으키는 해방적 행위가 아니라 하위계급 남성들이 여성 비하의 문화를 공유함으로써 남성적 권위를 포기하지 않으려는 호모소셜<sup>25)</sup>한 연대 행위에 가깝다. 이들이 하위계급 남자로서 겪는 소외과 고통은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 마치 성적 욕망의 좌절에서 기인한 것인 듯한 착각마저 유발한다. 외로움에 몸부림치며 자위 행위를 하는 남성들은 소설의 곳곳에서 등장한다. 이 소설의 문체는 토속적인 우리 말을 구

22) 우에노 치즈코, 앞의 글, 64-65쪽.

23) 한수영, 「말을 찾아서」, 『문학동네』 7권 3호, 2000, 62-63쪽.

24) 김상배는 공사장의 인부들을 사업적 이익을 내기 위한 도구로 보면서도 이들에게 “노사勞使 관계를 떠나서도 어렵잡게 있을 수 있는 우정”을 느낀다. 특히 그는 마길식이 보여준 “무상의 우정”에 감동하며, “꺾어져 기조 완성”(하권, 30쪽)을 목표로 무슨 일이든 열심히 하는 왕순평에게서 자신을 보는 것 같은 연민을 느껴, 순평이 짝사랑하는 초순이와 결합할 수 있도록 후원한다.

25) 이브 세즈웁은 아드리엔느 리치의 레즈비언 연속체 개념을 빌려와 섹슈얼리티를 억압한 남자들끼리의 유대를 호모소셜 연속체라고 명명하며, 우정이나 사제 관계 등 남성들의 사회적 유대의 배경에 동성에 혐오와 여성 혐오가 있다고 분석한다. 우에노 치즈코, 『여자들의 사상』, 조승미 역, 현실문화, 2015, 221쪽.

현하고 있다는 표현으로 충분하지 않을 만큼 남성의 성적 판타지와 욕망을 노골적으로 전시한다. 음담패설체는 민중 남성의 문화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초남성적 개발주의의 지배적 남성성에 대한 동의와 선망을 암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sup>26)</sup>

#### 4. 결론을 대신하며

1970년대 한국 소설은 남성적 유대와 남성적 성장의 서사를 공통의 화소로 삼는다. 정부에 의해 주도된 개발은 단지 사회의 경제 질서를 산업화하고 시장체제를 본격화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인들의 일상 생활과 정신문화를 지배하는 이데올로기였다. 『장한몽』은 근대화가 땅의 용도 변경 과정인 것과 마찬가지로 산업사회에서 남성 주체는 명분과 의리 등 전(前) 근대의 덕목이 아니라 책임감, 합리성, 자제력, 나아가 용의주도함마저 가진 생산적 노동자로 다시 태어날 것을 요구받는 과정임을 보여준다. 70년대 문학은 개발주의 이데올로기의 압력 속에서 개인의 자유와 취향을 포기하는 데 따르는 고통이나, ‘자기 진정성의 윤리’를 외면한 채 성장의 압력 속에서 속물화의 위기에 놓인 인물들을 통해 근대화에 대한 반감을 표현해왔다. 그러나 이문구는 이른바 시민적 권리를 결여한 도시

26) 이윤 추구와 도구적 합리성을 토대로 하는 자본주의 체제의 발달은 가족 임금 체계와 소위 동반자적 연애 결혼을 중심으로 한 남녀 관계를 형성시킨다. 개발기는 남성에게 가족 부양을 책임지는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부여하는 한편으로 부양을 남성의 윤리로 만들었다. 동성 간의 관계와 이성간의 관계에서 추구되는 내용도 이 시기를 통해 판이하게 달라진다. 남성 간의 관계는 목적 달성을 위한 경쟁과 단결이 강조되어 업적과 능력 위주로 흐른 데 반하여, 남녀 간의 감정적 친밀성은 전 시대의 소원함과 대조적으로 크게 강조되기 시작한다. 남성은 슬프거나 외로울 때 여성에게 위안을 구하고자 하며 연애는 인생에 있어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된다. 그러나 남녀 관계는 진정한 감정 교류에 근거한 친밀성으로 발전하지 못한다. 조혜정, 『남성다움의 구성과 재구성』, 『한국의 여성과 남성』, 문학과지성사, 1988, 241-243쪽.

난민 혹은 하위계급들을 중심으로 이들이 사회 속에 통합되고자 하는 열망을 보여준다.

소설 속 남성들은 근대화의 무상성을 회의하기보다 ‘보통 사람’처럼 사회 속에서 승인받고자 고투한다. 특히 이들은 가장/부양자의 자격을 획득함으로써 남성의 권위를 누리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렇다 할 사회 자본이 없다는 점을 알리바이 삼아 야비하고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하는 데 거리낌이 없는 태도를 취하며, 여성에 대한 비하적 상상력과 섹슈얼리티에 대한 집요한 욕망을 통해 자신의 남성성을 충족하는 것으로 시민/국민으로서 결핍된 처지를 벗어나고자 한다. 인간의 보편적인 권리는 공공적인 정체성 속에서 지역, 재산, 이념을 막론하고 자신이 가진 특이성조차 인정받는 것을 전제로 하지만,<sup>27)</sup> 이들은 공공의 시민적 권리를 갖지 못한 채 가부장적 가족의 가장과 여성 비하 속에서 자기의 우월성을 확인하는 마초적 남성성을 통해 권리의 결핍을 상쇄하고자 하는 것이다.

## 참고문헌

### 1. 자료

이문구, 『장한몽(長恨夢)』, 랜덤하우스중앙, 2004.

이문구, 「남의 하늘에 붙어 살며」, 『나-오늘의 작가들이 털어놓은 문학적 고백』, 강은교 외, 청람, 1987, 92-131쪽.

### 2. 단행본

김병익, 「한의 세계와 비극의 발견-『야호』와 『장한몽』」, 『현대 한국문학의 이론』, 김병익 외 3인 저, 민음사, 1974, 296쪽.

김병익, 「한에서 비극으로-이문구의 『장한몽』」, 『장한몽』, 책세상, 1987,

---

27) 이정숙, 앞의 글, 77쪽.

438쪽.

송희복, 「남의 하늘에 붙어산 삶의 뜻」, 『작가세계』 4호, 작가세계, 1992, 18-40쪽.

조혜정, 「‘남성다움’의 구성과 재구성」, 『한국의 여성과 남성』, 문학과지성사, 1988, 241-251쪽.

최원식, 「여성주의와 아버지 부재의 문학적 의미」, 『여성해방의 문학: 또 하나의 문(3)』, 평민사, 1987, 332-344쪽.

한수영, 「말을 찾아서」, 『문학동네』 7권 3호, 문학동네, 2000, 62-63쪽.

황병주, 「박정희와 근대의 꿈」, 『당대비평』 28호, 생각의 나무, 2004, 200-204쪽.

미즈타 노리코, 「창부 환상의 종언」, 『매매춘과 일본 문학』, 오카노 유키에 외 공저, 서기재 역, 지만지, 2008, 303-304쪽.

소포클레스, 『오이디푸스왕 안티고네』, 천병희 역, 문예출판사, 2006, 264-340쪽.

오카 마리, 『기억 서사』, 김병옥 역, 소명출판사, 2004, 89쪽.

우에노 치즈코, 『여자들의 사상』, 조승미 역, 현실문화, 2015, 221쪽.

장 차크 루소, 『에밀』, 김중현 역, 한길사, 2009, 398-401쪽.

조지프 슈페터, 『자본주의·사회주의·민주주의』, 변상진 역, 한길사, 2011, 123쪽.

존 로크, 『통치론』, 조현수 역, 타임기획, 2005, 152-153쪽.

지그문트 프로이트, 「슬픔과 우울증」, 『무의식에 관하여』, 윤희기 역, 열린책들, 1997, 243-270쪽.

R. W. 코넬 저, 『남성성/들』, 안상욱·현민 역, 이매진, 2013, 129-136쪽.

### 3. 논문

곽영희, 「자기 발견과 치유의 여정 -이문구의 장편 장한몽을 중심으로」, 『한중인문학연구』 27, 한중인문학학회, 2009, 61-83쪽.

이정숙, 「‘개발주의서사’의 ‘성-섹슈얼리티’에 대한 ‘혐오-연민」, 『여성문학연구』 36, 한국여성문학학회, 2015, 63-90쪽.

임경순, 「내면화된 폭력과 서사의 분열: 이문구의 『장한몽』」, 『상허학보』 25,



상허학회, 2009, 309-348쪽.

전정배, 「이문구의 ‘장한몽(長恨夢) 개작 연구」, 『국어국문학』 24, 동아대학교  
국어국문학과, 2005, 103-120쪽.

하용삼 · 배윤기, 「경계의 불일치와 사이 공간에서 사유하기-G. 아감벤의  
국민 · 인민, 난민을 중심으로」, 『대동철학회』 62, 대동철학학회,  
2013, 85-108쪽.

## Abstract

The cultural history of the development and a drama of acquiring a  
provider/masculinity

: focusing on Lee Mun-Gu's 『Jang Han Mong』

Kim, Eun-Ha

Lee Mun-Gu's 『Jang Han Mong』 a novel with a background of the middle of 1960's, and is the story of the process of changing the cemetery from Sinceon-dong, Seodaemun District to Myeongju-ri, Gwangju-gun, Gyeonggi-do. Originally San-5 was beautiful mountain, but during the Korean War, but while about 2000 tombs were created, it became a cemetery. However, when an American built up a technical school for mixed bloods in the cemetery site, the cemetery began to relocate. Since then, the cemetery is not a grotesque place where the spirits of revenge wonder but a school for mixed bloods from the war, which they learn the technique and grow. This implies that moving grave may be symbolic acts for finding a new life freely from memories of war and regret that press the survivor's mind. A motif of moving grave is a narrative to meet developmentalism that seeks a new advance of a history through advancement and renovation freely from days of anger and mental agony.

The development is a project of self-reformation that doesn't stay at the National Land development strategy that reorganizes urban spatial effectively. The reason why it is that the development holds a cause in great account and is an idealistic, therefore, it

orders us to gain the qualities of modern manhood as main agents of survival out of traditional manhood that is very weak and independent. Moving and changing from tradition to modern and from a farm village to a city mean a gendered drama that men can acquire masculinity of industrial society as a progressive performer. Especially, this novel shows that men of vulnerable social group struggle in order to survive to risk unlawfulness. The masculinity of protest is a type of developmentalism and of narratives of masculinity in the 70's, distinguishing from the decadent and depressed masculinity in dominant hegemony of the middle class or a generation of a youth cultural movement.

Key words : development, modern, masculinity, condolence the Korean War, the public biographical sketch, a style of dirty jokes

■ 본 논문은 2017년 3월 15일에 접수되어 2017년 3월 29일부터 4월 13일까지 소정의 심사를 거쳐 2017년 4월 17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

